

경제

■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임원 전원 4일 광주 방문

워크아웃 지역기업 사활 진 주채권銀
건설사 2차 구조조정 임박 관심 집중

DJ센터서 기업·개인 고객 200명 초청 현장경영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행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이 오는 4일 광주에 걸려 대규모 문화행사를 열고 지역 경제현안을 살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와 대한조선 등 지역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주채권은행인데...

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산은은 고객지향형 현장 밀착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가 행사장소로 선정된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접근이 쉽고 마케팅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민 행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행사는 4시간 동안 공연·관람·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민 행장과 임원들은 테이블별로 앉아 고객들과 함께 광주시립국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지역적 애로사항과 산업은행의 고객전략·변화상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민 행장은 행사에서 박흥서 광주상회회장, 이계호 전남도 행정부지



사, 임성근 광주지방국세청장, 임종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기업고객들과 만남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의 2차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가 예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의 신용평가가 확정되는 이날 말까지 건설사들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산은은 2차 구조

조정이 단행될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산은은 현재 금호타이어와 대한조선의 주채권 은행이며, 크고 작은 지역기업들의 주거래 은행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산은 임원들이 이번 광주 방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현안과 실정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채권은행의 대표적인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최근 남양건설·금강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키워드 경제 경상수지는 국가의 해외 돈벌이 능력

가계는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위해 가계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국가도 나라 살림살이 내용을 기록하는 데 이를 국민계정이라 한다. 국민계정의 하나로 국제수지표의 구성요소인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임금 및 투자소득과 같은 실물거래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국제수지나 경상수지 흑·적자는 경상수지 흑·적자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크게 수출액 대비 수입액의 많

고 적음을 따진다.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 국내 경제가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해 그만큼 국내에 투자 여유도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 경기가 좋아진다. 그 반대로 국민소득이 줄고 기업들의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 일자리가 줄고 국내 경기가 나빠진다. 경상수지 적자의 극명한 사례로는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가 대표적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자 그 적자

를 외환보유액으로 메운 뒤 보유액이 고갈되자 외채까지 얻어 써야 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외환 거래 능력이 없는 나라로 인식돼 외국 한 차입은 물론, 무역거래도 중단되는 지경이 됐다. 경상수지 흑자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해외 투자나 외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가 원화로 교환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돼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31일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캐주얼 매장에서 붉은색 계열의 다양한 옷을 선보였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4만9000원), 월드컵 티셔츠(4만1000원), 미니 공인구(1만5000원) 등 월드컵 관련 상품들이 다양하게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光銀 연말까지
중소 지원대책
0.8%P 우대금리

광주은행은 지난달 31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제조업)에 대해 대출기한 3년 이상,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 담보의 경우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 대출비용을 면제한다. 송기진 행장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골자는 연말까지 신규대출 중소기업(제조업)에 대해 대출기한 3년 이상,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 담보의 경우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 대출비용을 면제한다. 송기진 행장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새한철강 법정관리 개시

법원이 (주)새한철강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원건설과 남양건설 등으로부터 225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직

면한 새한철강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최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대표이사과 김진재 전 광주은행 부행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오는 7월29일

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에 대한 신고·조사를 거쳐 8월25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새한철강은 지난해 매출 1896억원으로 15년째 철강유통 부문 국내 1위를 고수해왔지만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2008년 210억원, 지난해 292억원의 적자를 기록,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조업 2500개社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사이에 제조나 공사 업무 등을 맡기거나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제조업 분야 2500개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1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1차 협력사 1000개를 대상으로 물품 제조나 공사 등을 발주한 대기업 등과의 납품대금 결제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이어 9월 말까지 1차 협력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모기업 250개사와 수탁기업 1250개사로 조사 범위를 넓혀 대금 결제 등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를 따진다. 마지막으로 연말까지는 불공정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법을 어긴 업체가 있으면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형뉴스

금호타이어 정상화 MOU 체결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31일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30일 워크아웃(기업개선택업)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안을 결의한 뒤, 오후 채권단과 MOU를 체결했

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근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MOU는 지난달 초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동의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금호석유화학 등 대주주 주식이 100대 1, 소액주주 주식이 3대 1 비율로 무상감자한다. 다만 박삼구 그룹 명예

회장에 채권단 주식을 매각할 때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아울러 전환사채(CB) 인수 등을 비롯해 총 6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3800억원 규모의 출자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MOU를 체결함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금호타이어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자와 출자전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상장사 채무 변제능력 향상
광주·전남 14개사 1분기 유동비율 76%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단기채무 변제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법인(12월 결산 14개사)의 올 1분기 유동비율은 76.12%로 작년 말에 비해 22.01%포인트 증가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로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유동

자산 증가분에 비해 유동부채 감소액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이 기간 유동자산은 5조6779억원으로, 전년보다 2.42% 증가한 반면 유동부채는 7조4590억원으로 1년 새 27.19% 감소했다. 유동비율 상위 3사는 부국철강(356.27%), 광주신세계(291.55%), 화천기공(274.60%)이다. 유동비율 증가 상위 3사는 부국철강(63.07%포인트), 금호산업(34.96%포인트), 광주신세계(18.44%포인트) 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Asset Name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641.25), 코스닥지수 (489.42), 금리 (3.58%), and 원·달러 환율 (1,202.50).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중남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토지매매, 건물매매,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맞춤형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감정기 이하, 매도·교환, 주택·아파트·임대. 병원건물, 상무지구 중심지, 대지1010㎡(305평) 건물2996㎡(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410만 원.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금제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ettkorea.com. 전국 2만여건의 경제활동리포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